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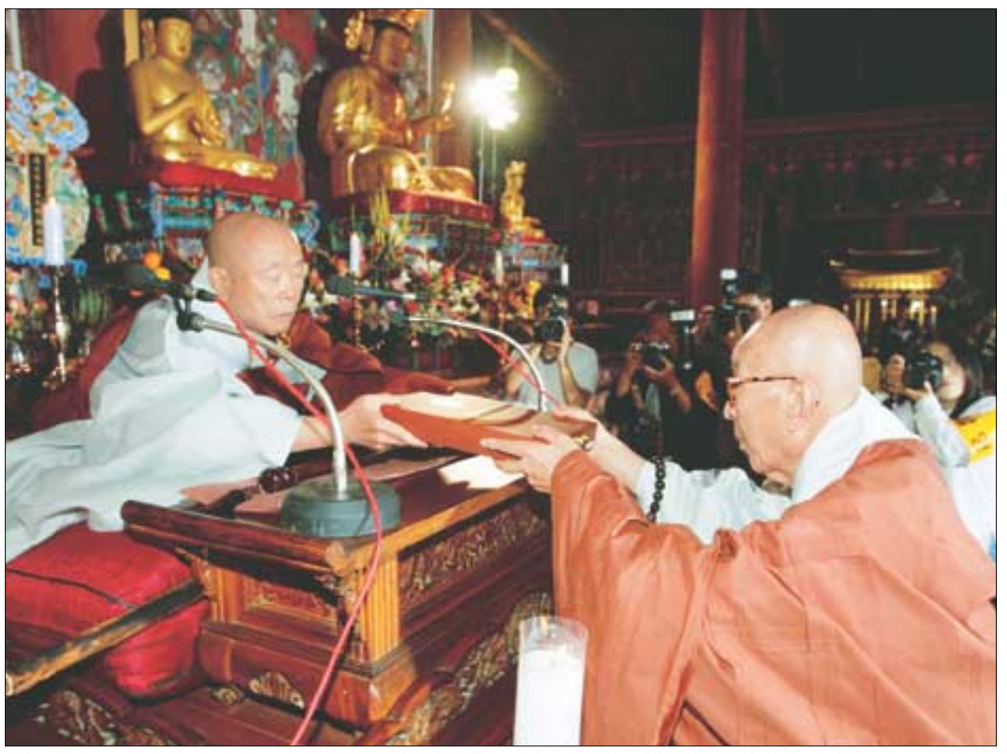
5월 31일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에 조계종 원로스님 21명이 모였다.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석주 · 수산 · 성수 · 도견 · 보성 · 원명 · 벽암 · 정천 · 천운 · 지관 · 종산 · 이두 · 활안 · 동춘 · 지혜 스님 등 법명만 들어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 시대 대표 원로들이다. 원로스님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대종사(大宗師) 법계 품서식(稟敍式)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품서식에 참석하고자 석주 스님이 부축을 받으며 대적광전으로 향하고 있다.

# 모든 중생 해탈케 하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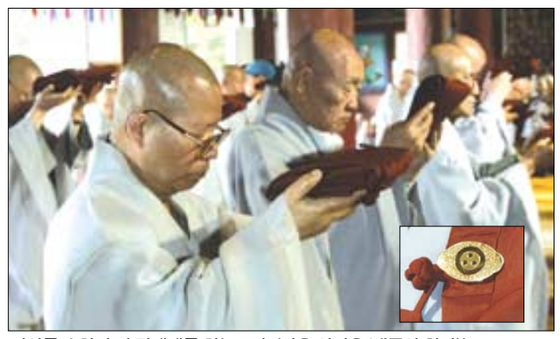
##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열리던 날

## 원로 21명 해인사서 '큰 서원'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 21명의 원로스님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법전 스님이 원로회의 의원 수산 스님에게 법계증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품서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가사를 수하기 전 정대게를 하는 모습 (작은 사진은 '대종사 휘장').

품서식 시작을 알리는 명종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진다. 스님들은 대적광전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향해 합장한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법계 품서를 부처님께 알리기 위해 고불문을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이 낭독한다.

"원하옵건대 삼가 저희들이 이로 인하여 성불에 이르도록 물러남이 없이 정진할 것이오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따라서 법계 중 최상위인 대종사는 최고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을 갖춘, 승가로서 최고의 지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의 하나다.

조계종으로 출가하면 6개월의 행자 생활(행자교육원에서 1개월 교육 포함)을 거친 뒤 사미(니)계를 받는다. 또 4년 동안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본선원)을 마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비구(니) 법계는 견덕(계덕)(승랍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중덕(정덕)(승랍 10년 이상, 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대덕(혜덕)(승랍 20년 이상, 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덕(현덕)(승랍 25년 이상, 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사(명덕)(승랍 30년 이상, 종덕법계 수지자), 대종사(명사)(승랍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로 구분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등이 부처님 전에 헌화를 한 뒤 원로의원 지관 스님이 서원문을 낭독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하나이다.…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절)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절)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절)"

몸은 쇠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초발심 그대로다.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지 못하면 목숨이 다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겠다는 다짐이다. 노구(老軀)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기가 대적광전을 휘감아 돈다.

종정 스님이 법상에 등단한 뒤 품서 대상자 스님 한 분 한 분에게 법계증을 수여한다. 원로 석주 스님이 첫 번째다.

석주 스님은 이번에 큰 마음을 냈다.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지 않아도 수행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종단 위계질서와 법계 체계를 확립한다는데 선뜻 동의해 구순이 넘는 몸을 이끌고 서울에서 해인사까지 왔기 때문이다.

### 법계중 최고 위치…수행 · 지도력 인정
###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종정법어
### 연꽃당초무늬에 휘장 달린 가사 첫선

법계증을 받아든 스님들은 조금은 신기한 듯 내용을 읽어보기도 한다.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면에 미소를 띠며 즐거워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종산 스님과 법계위원장 보성 스님은 종정 스님에게 법계증을 봉정했다.

잠시 후 종정 스님이 주장자 삼타를 한 뒤 법어를 내리기 시작한다.

"도의 국사가 구산선문(九山禪門)을 기원(起源)하니 아종조(我宗祖)요 태고보우가 조계종을 중천(重闡)했으니 아중흥조(我中興祖)라. 그 종맥(宗脈)이 면면부절(綿綿不絶)하여 현전(現前)에 이르렀으니 금일 계계상승(繼繼相承)한 대종사위(大宗師位)를 제방(諸方)의 선장(禪匠)들에게 품수하는 호시절이 도래했구나. 이는 여래의 심인(心印)을 이어받은 마조의 현현(顯現)이요 임제의 응화(應化)이니 이 땅의 불일(佛日)을 만고(萬古)에 빛나게 하고 삼보(三寶)를 법계에 유전케 함이라."

법어가 끝난 뒤 법계위원장 보성 스님이 가사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가사에는 연꽃 형태에 당초무늬를 바탕으로 조계종의 상징인 삼보륜이 새겨져 있는 대종사 휘장이 달려있다.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가사를 수하기에 앞서 스님들은 정대게(頂戴偈)를 읊기 시작한다. '어진 마음 청정한 손으로 모든 중생을 섭취하여 일체 액난에서 구해 안온하게 하고저 이 복전을 지으니 살아서는 재해가 없어지고 오곡이 풍성하며 죽어서는 왕생극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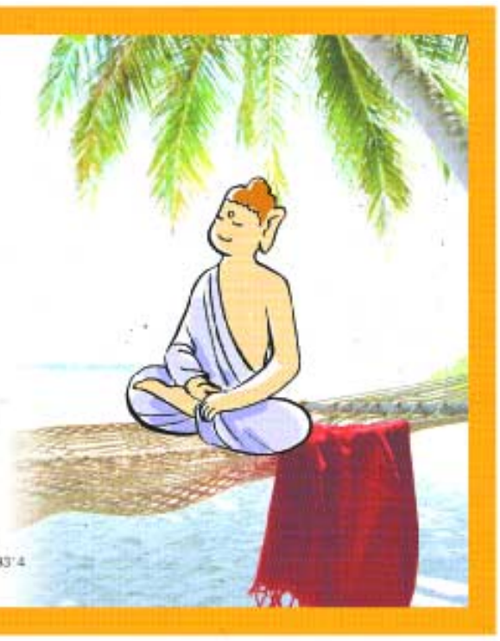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한 스님들은 원로회의 의원 원명 스님의 발원문 낭독을 마음속에 새기며 가없이 용맹정진 할 것을 발원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법계를 품서한 스님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법의 상징인 불자(拂子)를 봉정한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7백여 대중들이 스님들에게 정신적 사표(師表)에 대한 삼배의 예를 올린다. 사홍서원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거행된 대종사 법계 품서식. 팔만대장경의 법향에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스님들의 법향이 더해진다. '이 땅의 불일(佛日)을 만고(萬古)에 빛나게' 할 그날이 어서 오기를.

해인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로스님들에게 불자를 봉정하고 있다.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무심(無心)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참된 웰빙을 맛본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흔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출간 2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책 이 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지 자 : 문 화 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수선재
펴 낸 날 : 2004년 5월 6일
가 격 : 9,000원
분 량 : 240쪽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